

News

美 연준의장 “물가 너무 높다…필요시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KBS

세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 현지시간 21일 기준 물가 수준이 너무 높아 필요할 경우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 밝혀…

전미실물경제협회 컨퍼런스 연설에서 “노동시장은 매우 강력하지만 물가가 너무 높다”고 언급… 한번에 0.5%p 인상하는 빅 스텝 밟을 가능성 시사

DSR 손본 뒤 LTV 조정…청년 대상 '핀셋 완화'도 검토

이데일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LTV 조정에 앞서 DSR 규제에 대한 강화, 유지, 완화 여부 확정 계획… 금감원, LTV 상향 실효성 분석을 위해 DSR 조정별 영향 분석 진행
규제 일변도로 가계부채 관리해온 정부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분석 나와… 당국내에서도 DSR 강화안을 폐기하거나 적용 시점 연장하려는 분위기 감지

“중기 대출 확보하자”…은행권, 플랫폼 업체 발굴 경쟁

e대한경제

시중은행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확대를 위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각종 플랫폼 업체와의 제휴 발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분위기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은 시설자금 수요 비롯 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 지속되면서 증가세 늘어나는 모습… 신한은행,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와 업무협약 등…

토스뱅크 이어 케이뱅크도 개인사업자 대출 개시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 국내 인터넷은행 중 토스뱅크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대출 시장에 나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비대면 금융지원 강화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MOU 체결
이번 협약은 케이뱅크가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의 마무리 단계… 현재 시스템 작업 막바지 과정에 테스트 절차 거쳐 출시 예정

상품 개정의 달…생보사들, 잇단 조정 시작

보험매일

대형 생보사들, 다음달 보험 상품 개정… 한화생명 4개 상품 폐지, 8개 상품 판매 일시 중지… 삼성생명, 변액 종신보험 판매 중단, 유방 암보험 보장 축소

업계 관계자 “회사나 상품별 이유 다르겠지만 보험상품 개정은 대부분 손해를 조정이나 고객 수요 감소 등의 영향”… 다음달 무해지 전면 개정 앞두고 절판마케팅 한창 중

KB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판매한다

MTN

KB손보, 한국웰케어산업협회와 데이터 자문 및 판매 계약 체결… 이번 계약을 통해 KB손보의 MZ세대 전용 대사중후군 관련 미니보험 상품 기획 예정
공식적으로 부수업무 자격 갖추고 업계 최초 보험사 데이터 판매 및 빅데이터 자문서비스를 통한 수익 모델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

증권사 작년 순익 9조원… 또 사상 최대 실적

디지털타임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58개사의 당기순이익 9조 941억원으로 전년 대비 54.2% 증가한 것으로 집계… 다시 한번 최대 실적 기록 경신

손익별 현황으로는 수수료수익이 전년 대비 23.2% 증가한 16조 8,048억원으로 집계… 금감원 관계자,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성 상존. 고위험자산 투자 확대 등 검토 예정”

잘 나가는 스팩…키움증권 '스팩'도 흥행할까

EBN

키움증권, 키움제6호스팩에 대해 23~24일 수요예측, 28~29일 일반 청약 거쳐 다음달 중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

국내 증시 불안정해 안정적 수익 내고 있는 스팩에 투자금 몰리는 중… 키움증권, 올해 또 다른 스팩 상장계획은 아직까지 없음 언급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